

# 하우스온주 재배 늘어 가격 약세 전망

### 올해 381ha 규모 재배... 전년비 5%·평년보다 19% 증가 5월 출하량 1524t... 도매가격 전년보다 소폭 하락할 듯

제주지역 하우스온주 재배면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산량에 따라 해마다 가격 등락이 심한 노지온주 재배농가들이 작형을 전환하는 데 따른 것으로, 4월 하순부터 출하가 시작된 하우스온주 가격이 5월부터는 약세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일 관측자료를 통해 올해 제주산 하우스온주는 381ha에서 2만6796t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5.0%, 19.1% 증가하고, 생산량은 각각 6.5%, 13.7% 늘어난 규모다. 작황도 좋아 단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10a(300평)당 7025kg로 예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하우스온주 재배면적은 2000년만 해도 566.5ha에 달했다. 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유통비 부담 등으로 경영비를 견디지 못한 농가가 늘면서 2005년 408.7ha, 2010년 312.3ha, 2015년에는 250ha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노지온주의 생산량 증감에 따라 가격등락폭이 커지면서 2016년(284ha)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7년 301ha, 2018년 321ha, 2019년 339ha, 2020년 363ha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본격 수확철로 접어드는 5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1524t으로 전년보다 5.9% 늘어난 것으로 전망됐다. 5월 품질은 기후조건이 좋아 당산비, 외관, 크기 등 전반적인 품질이 양호한 가운데, 착과량이 많아 전년보다 소과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우스온주의 5월 도매시장 경락 가격은 상품 3kg에 2만8000~3만원(원)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5월 1~3일 평균 경락가격은 3kg에 3만5956원을 기록했는데, 갈수록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5월 국내 수입과일량은 오렌지는 전년(1만2008t) 대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한국간 해상운송 컨테이너 부족에 따른 수입 지연 때문이다. 포도도 주 수입국인 칠레의 작황부진으로 지난해(3054t) 대비 감소를 예상했다. 반면 바나나는 주 수입국인 필리핀의 봉쇄조치 완화로 지난해(3만3259t)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노지온주 개화일은 4월 26일로 전년 대비 7일 빠르고, 만개일은 5월 6일로 5일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개화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겨울철과 봄철 기온이 전년 대비 2~3℃ 높았고, 강수량 증가 등 기상여건은 양호했는데, 서귀포시 지역 해거리 현상으로 올해 개화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영향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봄철 불청객 비래해충 농작물 '비상' 도농기원 "올해 유입시기 빨라지고 양도 많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비래해충 유입 시기가 지난해보다 빠르고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래해충의 빠른 방제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비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 등은 봄철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와 옥수수 등 벼과 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 24일 한림읍 소재 옥수수 재배 포장에서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을 발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2주 정도 빠른 것이다.

멸강나방은 지난해 5월 12일 처음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열대거세미나방은 페로몬 트랩으로 유인해 잡은 수컷이며, 발육 상태를 감안할때 4월 21일 이후 중국에서 국내로 날아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중국 남부지역 평균기온이 높아 나방류 번식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입 날씨가 빨라지고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을 비롯한 비래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5월 상·중순경부터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원은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옥수수 재배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대모기자

##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부터 월동채소 재배지를 휴경하거나 지정된 녹비작물 또는 식량작물 재배 시 일 정금액을 지원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휴경 또는 녹비작물 재배 등을 통해 지역 향상을 물론 토양,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 및 월동채소 수급조절을 위해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휴경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12월 중 ha당 380만원을 일괄 농가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조건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로 최근 2년 이내

재배면적 신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필지 중 1가치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필지는 6월 중 1차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월동채소 파종(정식)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휴경 또는 지정된 녹비(식량)작물 재배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12월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 ha당 360만원에서 올해 38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했으며 재배가능 품목에 녹비작물을 비롯해 식량작물인 콩, 팥, 녹두, 가을메밀을 추가했다.

제주형 자조금단체 활성화 및 농협 계통출하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올해 품목별 자조금단체 신규회원을 포함했다. 고대모기자

## 제주상의, 명예회장 등 추대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출범한 제24대와 함께 할 명예회장과 고문 9명을 추대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회장에는 김대형 (주)대경산업 회장(전 제주상의 22대·23대 회장)을 추대했다. 또 고문에 현승탁 (주)한라산 회장(전 제주상의 20·21대 회장), 강재업 (주)삼영교통 회장(전 제주상의 17~21대 감사·상임위원) 등 9명이 추대됐다.

이번에 추대된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24대 임기와 같은 2024년 4월까지 3년으로, 상의 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하게 된다. 문미숙기자



급변풍 경보... 제주공항 결항 속출 제주국제공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급변풍 경보가 내려진 4일 오후 공항 출발층에는 제주를 이송시키자는 관광객로 북새통을 이뤘다.

## 신선식품·유가 급등에 4월 물가 '경충'

### 3.3% ↑... 물가지수 기준연도 2015년 이후 오름폭 최대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류의 작황부진과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제주 지역 4월 소비자물가가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4일 발표한 '제주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도내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이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인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전 최

고 상승률은 2017년 1월 3.0%였다.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도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신선 어개류와 채소, 과일 신선식품지수는 17.5% 급등해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더욱 끌어올렸다. 특히 도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월(-0.2%), 5월(-0.8%), 6월(-0.3%)에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고, 그 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연속해서 0%대의 낮은 상승률에서 2월 1.2%, 3월 2.1%에 이어 4월까지 오름세를 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0.2% 하락했던 데 따른 저효과와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4월 물가 인상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품목성질별로는 상품 물가가 1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이 1년 전보다 15.8% 올라 오름세를 주도했는데 사과(75.0%), 돼지고기(19.7%), 고춧가루(39.7%), 국산쇠고기(10.1%)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딸기(-8.6%), 양배추(-49.2%), 생강(-17.2%), 전복(-13.4%)은 1년 전보다 값이 내렸다. 공업제품도 3.6% 올랐는데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휘발유(16.9%), 경유(16.1%), 등유(26.0%), 취사용LPG(9.4%)가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료는 2.0% 내렸다.

품목성질별 물가 중 서비스 요금은 1년 전보다 1.1%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제항공료가 14.0% 올랐다. 문미숙기자

##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

##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